北, 불교 유행…호신불·불단 보급 확산

불상 1구 약 1달러에 행상서 판매돼
쌀 3kg 값에도 불상 모시기 유행중
기독교는 처벌…불교 제한적 허용
거주지역 사찰에 불공 드리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남북협력으로 복원해 개성 영통사에 봉안된 불상. 사진출처=RFA

국민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북한에서 호신불을 소지하거나 가정에 불단을 둔 주민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미국 'RFA(자유 아시아 방송, Radio Free Asia)'와 일본 '데일리 NK 재팬'은 현지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평안남도의 정보통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손바닥 크기의 불상을 집에 모시거나,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매일 아침 행상인이 가정을 방문하며 1구에 약 1.17달러인 불상을 판다"고 밝혔다.

RFA 측은 "불상의 가격은 북한에서는 쌀 3kg을 살 수 있는 가격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며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조차 쌀을 사는 데 쓸 돈으로 불상을 산다. 사람들은 집에 불상을 모시면 불운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데일리 NK 재팬'은 "원래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강세였던 지역"이라며 "북한 정권이 성립된 이후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반동종교'라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성경이나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의 신앙상징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북한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 북한에선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 강제 노역, 투옥, 처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상 판매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불교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나 허용돼 적발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북한 현지 정보통은 평양 근교 평성시에서도 불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은 본인 역시 집에 불상이 있다고 밝히며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에 불상을 보고 하루가 무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상을 산 사람들 모두 불운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사업이 더 잘 되길 바란다"며 "종교적인 이유로 불상을 모시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정보통은 불상의 출처에 대해 "도자기 공장의 노동자들이 몰래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자기 공장의 숙련공들이 황토로 불상을 성형하고, 각 집에 설치된 작은 가마에서 굽고 노란색이나 금색으로 칠해서 행상인들에게 넘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거주 지역 주변에 사찰이 남아 있는 경우 노인들이 땔감이나 나물 등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사찰을 참배하고 불공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모인 청년 불자들, 사회 변화 모색 다짐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개최
16개국 청년 한자리서 논의


대만에서 열린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 개막식 기념촬영. 사진출처=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가 대만 홍서불교학원과 협력해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5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의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개최 소식을 전했다.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적 회복과 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진행해 16개국의 청년 불교 지도자와 사회 활동가 27명이 참가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대만 홍서불교학원과 함께 개최한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사회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자신감 함양과 역량 개발, 실천을 목표로 한다"며 "자애와 연민, 자비의 가치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밝혔다.

국제 청년 보살 프로그램은 지적·영적·육체적 실천불교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교 토론, 공동체 구축 활동, 명상 수행은 물론 대만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관, 불교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청년 불자의 사회 참여 기회와 도전, 불자 및 사회 활동가들의 역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와 제도적 힘의 원천을 분석하고 청년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조사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청년 및 노인, 교사, 자원봉사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자국과 지역사회와 참여불교 연결법을 고민했다. 이어서 지역사회 기여와 미래 리더십 종합 육성 계획 마련에 나섰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불자를 비롯한 전 세계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는 1989년 태국 술락 시바락사 교수를 필두로 불교 지도자와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불교계와 이웃종교 간 대화, 협력, 연결을 증진하고 인권, 분쟁 해결, 환경 위기 등 국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여성 불교지도자 노사·도온, 美서 탄생 '화제'

일본 임제종 여성 지도자 탄생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 다짐


린센 스님이 카렌 스님의 노사 · 도온 인가증명을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돌레도블레이드

미국 오하이오 주 일본 불교 사원에서 노사와 도온이 탄생해 화제다.

지난 10월 24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톨레도 사원의 노사·도온 인가증명 의식 봉행 소식을 전했다.

일본 선불교 임제종의 말사인 톨레도 사원에서 카렌 도온 웨이크 스님의 노사(老師)·도온 인가증명 의식이 봉행됐다. 달마 전승을 받은 카렌 스님은 임제종 계보에서 희귀한 여성 노사이자 88대 도온이 됐다. 노사는 일본 선종에서 사찰을 이끌며 제자를 지도하는 수행자를 뜻하고 도온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에게 부여되는 칭호다.

카렌 스님은 "수십 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구하고 펼치며 승가와 공동체 없이는 선생님도 없다고 생각했다"며 "일본 선종 전통에 따르면 도온은 완전한 인간 부처로 간주된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로 여러분과 기꺼이 소통하고 부처님 법을 등불 삼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린센 스님은 "미국 전역에서 노사 칭호를 받은 여성은 굉장히 드물다. 특히 X세대의 노사는 거의 없다"며 "카렌 스님의 노사 인가증명은 여성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예시이자 지역 사회와 세상을 위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톨레도 사원의 켈리 스님은 "함께 수행한 카렌 스님이 두 가지 칭호를 얻었다. 선 수행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며 "톨레도 사원에 두 명의 노사가 있기에 더욱 깊고 풍요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불교계, 인도 고고학 아버지를 기리다

10월 26일, 런던서 추모법요
알렉산더 커닝햄 업적 재조명


커닝햄경의 묘소에 헌화한 법요식 참가자들. 사진출처=더 선데이 타임즈

인도 불교유적에서 고고학적 발굴과 조사를 처음 실시한 알렉산더 커닝햄 경을 기리는 추도법요가 런던에서 봉행됐다. 영국의 '더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는 10월 27일 런던 현지에서 봉행된 추도법요에 대해 보도했다.

10월 26일 런던 불교계 인사들이 켄살 그린 묘지의 알렉산더 커닝햄 경 묘소를 방문해 법요식을 가졌다.

법요식에서는 커닝햄 경이 인도에서 이뤄낸 고고학적 업적에 대한 요약이 낭독됐다. 알렉산더 커닝햄 경은 1883년 영국 치하의 인도에서 벵골 공병대의 중위로 캘커타에 부임했다. 이후 서구학계에 아쇼카 왕을 알린 동양학자 제임스 프린셉과 인연을 맺으며 인도 고고학 연구에 몰두했다.

커닝햄 경은 산스크리트어를 수학하고 중국에서 인도를 순례한 구법승 법현과 현장 삼장의 흔적을 추적했다. 1851년에는 산치의 불교 유적지들과 사리탑들을 조사한 후 조사 보고서를 출판 했는데 이는 인도 불교역사에서 고고학 증거를 포함한 최초의 조사 보고서로 꼽힌다.

커닝햄 경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부다가야를 조사하고 세계에 알린 일이다. 날란다 대학유적, 쿠시나가라 열반당, 사위성 유적 등은 모두 그가 발견하고 조사한 곳이다. 1885년 은퇴하여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불교 유적지들에 대한 책들을 출판하면서 현대에 '인도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이날 추도법요식에서 실라위말라 스님은 커닝햄 경의 묘소에 헌화하고, 빨리어로 법요식을 진행했다. 스님은 "커닝햄 경은 뛰어난 고고학적 업적들을 남겼으나, 불교도들에게는 성지들을 다시금 방문해 부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해준 은인"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더 선데이 타임즈'는 "런던의 불교도들이 공식적으로 커닝햄 경을 기린 법요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법요식에는 생전 그와 깊은 인연이 있는 마하보디협회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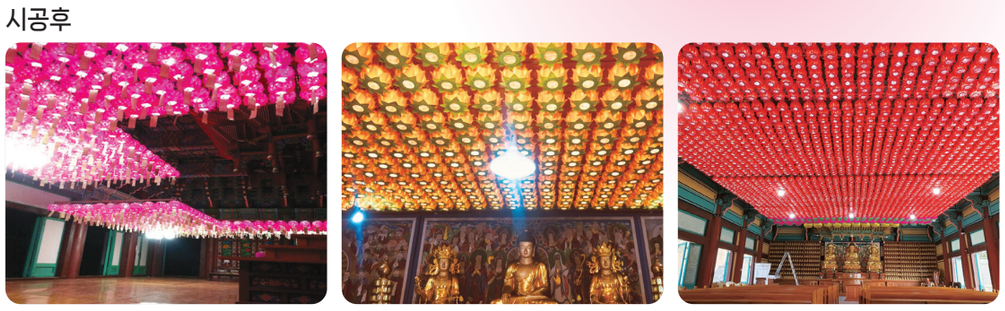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